

보도자료

홍콩 | 3월 29일 | 2026년

## 아트 바젤 홍콩 2026, 글로벌 참여와 강력한 판매 실적, 그리고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에서 확장된 기관 참여로 성료

지역 간 수요의 확장은 아시아 태평양 아트 마켓의 한층 강화된 저변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다양해진 글로벌 컬렉터 및 미술관의 참여, 진화된 큐레이토리얼 프레임워크, 그리고 도시적 차원의 통합이 보다 심화되며, 본 행사가 글로벌 아트 생태계의 핵심 목적지이자, 예술적·상업적·제도적 교류를 선도하는 국제 플랫폼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아트 바젤은 2026년 홍콩 에디션을 마무리하며, 모든 시장 세그먼트 전반에서 강력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전 세계의 컬렉터·기관·문화계 리더들이 참여한 국제적 관객층을 끌어모았다. 이번 결과는 홍콩이 아시아 속 세계 미술계의 핵심 교차점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올해 행사는 전시와 더불어 도시 전역에서 펼쳐진 퍼블릭 프로그램을 포함해 **91,500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며, 아트 페어 뿐만 아니라 홍콩 전반의 문화 생태계에 걸친 폭넓은 관여를 부각했다.

또한 이번 에디션에서는 **아트 바젤과 홍콩 문화체육관광국(CSTB) 간의 새로운 5년간 협력 체결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협약은 홍콩을 아트 바젤의 지역 내 유일한 개최 도시로 다시 한 번 확립하는 한편, 도시의 문화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홍콩의 국제 예술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행사 기간 내내 갤러리들은 지속적인 판매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전역, 예를 들어 중국 본토, 홍콩, 한국, 대만, 일본,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컬렉터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갤러리들은 지역을 넘나드는 대화와 작품 거래가 증가했음을 언급했으며, 컬렉터들이 지역과 세대 그리고 장르를 가로지르며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첫 구매 컬렉터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어 전반의 큐레이토리얼 전개는 보다 통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예술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새롭게 구성된 큐레이토리얼 팀 — 마미 카타오카(Mami Kataoka)와 이사벨라 탐(Isabella Tam), 알리아 스와스티카(Alia Swastika), 히로카즈 토쿠야마(Hirokazu Tokuyama) — 이 이끄는 **엔카운터스(Encounters)** 섹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술관 및 제도권 관객의 참여에 호응하는, 야심적인 현장반응형(site-responsive) 작업들을 선보였다. **에코즈(Echoes)**를 비롯해 엘리 샤인먼(Eli Scheinman)이 큐레이션을 맡은 **제로 10(Zero 10)** 등 신규 포맷은 변화하는 예술 생산 및 컬렉팅 양식에 대응하는, 보다 집중도 높은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보다 큰 흐름은 아시아 제도권 미술 지형과의 긴밀한 연계, 그리고 도시 내 갤러리와 문화 생태계 전반의

# Art | Basel Hong Kong

지속적인 성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 상업적 성과

갤러리들은 한 주 내내 꾸준한 판매 실적을 보고했으며, 거래 활동은 오프닝 VIP 데이를 넘어 전 기간에 걸쳐 이어졌고, 시장의 전 분야에서 고르게 분포되었다.

컬렉팅 수요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작가들에게서 두드러졌으며, 기성 작가와 신진 작가 모두에 대한 강한 관심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국제 작가들의 작품 역시 이 지역 컬렉터들과 꾸준히 거래가 성사되었다. 장르를 가로지르는 크로스-미디어 실천 역시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2025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에서의 글로벌 런칭에 이어, 아시아에서 첫 선을 보인 **제10**은 디지털 시대의 예술에 대한 아트 바젤의 관여를 의미 있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페어 구조에 완전히 통합된 이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및 기술 기반 예술 실천이 최고 수준에서 소개되고 비평적으로 맥락화하며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엄격한 큐레이토리얼-마켓 환경을 구축하며, 이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아시아 컬렉터층과 제도권의 성장하는 주목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최신작을 중심으로 한 밀도 높은 전시 구성을 선보이는 신규 섹터 **에코즈(Echoes)**의 도입은 이러한 모멘텀을 한층 강화했다. 미드-마켓 갤러리와 명확한 작가 포지션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이 섹터는 컬렉터와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페어 포맷 안에서 더욱 압축된, 대화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 글로벌 컬렉터와 기관의 참여

아트 바젤 홍콩 2026은 전 세계 주요 미술 시장을 아우르는 폭넓은 컬렉터 및 기관 관람객을 한자리에 모았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의 강한 참여와 더불어 주요 국제 시장의 지속적인 관여가 두드러졌다.

한 주 동안 갤러리들은 기존 후원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 컬렉터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고했으며, 세대를 가로지르는 교류가 늘어나고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구매자층의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리뉴얼된 VIP 프로그램은 이러한 역동성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기능했으며, 허 아트 뮤지엄(He Art Museum)과 록번드 아트 뮤지엄(Rockbund Art Museum) 등 주요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출범한 '**프렌즈 오브 아트 바젤 홍콩(Friends of Art Basel Hong Kong)**'은 이 지역 컬렉터 및 기관과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했다.

기관 방문은 올해 역시 행사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27개국 및 지역에서 온 170개가 넘는 미술관 및 재단 관계자들이** 본 에디션을 찾았다. 이들 기관에는 홍콩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항저우의 **바이 아트 매터스(BY ART MATTERS)**, 파리의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 방콕의 **디브 방콕(Dib Bangkok)**, 바젤의 **폰다시옹 베일러(Fondation Beyeler)**, 광저우의 **광둥미술관(Guangdong Museum of Art)**, 아부다비의 **구겐하임 아부다비(Guggenheim Abu Dhabi)**, 광주의 **광주비엔날레(Gwangju Biennale)**, 포산의 **허 아트 뮤지엄(He Art Museum)**, 워싱턴 D.C.의 **허쉬혼 미술관-조각 정원(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홍콩미술관(Hong Kong Museum of Art)**, **홍콩고궁박물관(Hong Kong Palace Museum)**, 홍콩의 **K11 아트**

# Art | Basel Hong Kong

파운데이션(K11 Art Foundation, KAF), 마닐라의 콘템포(Kontempo), 서울의 리움미술관(Leeum, Samsung Museum of Art), 아부다비의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 홍콩의 엠플러스(M+), 상하이의 민성미술관(Minsheng Art Museum), 자카르타의 뮤지엄 마칸(Museum MACAN –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Nusantara), 방콕의 방콕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Bangkok, MOCA Bangkok), 청두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hengdu), 상하이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Shanghai), 베이징의 중국국가박물관(National Museum of China), 오사카 국립국제 미술관(National Museum of Art, Osaka), 홍콩의 파라 사이트(Para Site), 상하이의 록번드 아트 뮤지엄(Rockbund Art Museum), 샌프란시스코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FMOMA), 싱가포르미술관(Singapore Art Museum),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홍콩의 타이쿤 컨템포러리(Tai Kwun Contemporary), 런던의 테이트(Tate),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선전의 롱 미술관(Róng Museum of Art), 그리고 베이징의 UCCA 현대미술센터(UCCA Center for Contemporary Art)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홍콩 전역의 역동적인 문화 환경과 맞물려, 홍콩미술관(Hong Kong Museum of Art), 홍콩고궁박물관(Hong Kong Palace Museum), 엠플러스(M+), 타이쿤 컨템포러리(Tai Kwun Contemporary), 비디오테이지(Videotage)를 비롯한 파트너 기관들의 주요 전시와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 전역에 걸친 폭넓은 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층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홍콩발레단(Hong Kong Ballet)과의 첫 협업을 포함한 분야 간 교차 협업은 홍콩이 연중 내내 예술 생산과 교류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 갤러리 관점

“우리는 홍콩을 향한 글로벌 미술계의 긍정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오프닝 당일 판매는 매우 강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새로운 컬렉터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아시아 미술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 - 데이비드 즈워너,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 설립자 (파리, 홍콩,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

David Zwirner, Founder, David Zwirner (Paris, Hong Kong, London, Los Angeles, New York)

“페어 첫날의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 클라이언트들과 다시 만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과의 관계도 시작했습니다. 부스에서의 프레젠테이션과 갤러리 전시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 - 닉 시무노비치, 가고시안 아시아 수석 디렉터 (홍콩, 파리, 아테네, 로마, 바젤, 글슈타트, 르 부르제, 런던, 비벌리힐스, 뉴욕)

Nick Simunovic, Senior Director in Asia, Gagosian

“이번 주에는 이 지역의 많은 친구들 — 큐레이터, 작가, 컬렉터 — 이 홍콩에 모였고, 이는 훌륭한 대화와 멋진 에너지로 이어졌습니다. 아트 바젤 홍콩에서 우리는 분명한 도약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날에 루이즈 부르주아, 조지 콘도, 라시드 존슨, 이불, 신디 셔먼, 에이브리 싱어, 추샤오펬이, 플로라 유크노비치의 작품들을 아시아 및 그 너머의 저명한 컬렉션과 기관들에 성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 Art | Basel Hong Kong

- 마크 파욧, 하우스어앤위스 대표 (파리, 홍콩, 모나코, 메노르카, 바젤, 글슈타트, 생모리츠, 취리히, 런던, 서머셋, 로스앤젤레스, 뉴욕, 웨스트할리우드)

Marc Payot, President, Hauser & Wirth

“총 약 500만 파운드 규모의 매출과 현재까지 약 20점의 작품이 성사된 가운데, 안토니 고품리와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에 대한 열띤 반응과 더불어 에텔 아드난, 모나 하툼, 하워드나 핀델, 샤오판 등의 주요 작품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지니는 힘과 적실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 웬디 쉬, 화이트 큐브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 (홍콩, 파리, 서울, 런던, 뉴욕)

Wendy Xu, Managing Director, Asia, White Cube

“최상위급 컬렉터들이 대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 헨리에타 츄이-링, 오라-오라 설립자 (홍콩)

Henrietta Tsui-Leung, Founder, Ora-Ora

“홍콩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강수경, 이신자, 제니퍼 티의 중요한 작품들을 아시아 주요 기관과 재단에 성공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온 관람객을 포함해, 이 지역 곳곳에서 많은 컬렉터들이 찾아왔습니다.”

- 티나 김, 티나 김 갤러리 설립자 (뉴욕) / 갤러리즈

Tina Kim, Founder, Tina Kim Gallery

“수요일 VIP 오프닝 이후로 내내 매우 분주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은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부스를 찾았고, 홍콩, 도쿄, 시드니, 밴쿠버, 자카르타, 다카르에서 온 큐레이터들과도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페어의 도달 범위와 홍콩 및 그 일대에서 성장 중인 미술 생태계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니나 레벤트 박사, 사파 컨템포러리 설립 디렉터 (알마티, 뉴욕) / 인사이트

Dr. Nina Levent, Founding Director, Sapar Contemporary

“이번 에디션 기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국제 컬렉터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일본 주요 재단의 관계자들과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 컬렉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최재우, 조현화랑 대표 (부산, 서울)

Jaewoo Choi, President, Johyun Gallery (Busan, Seoul)

“우리는 아시아 전역에서 새롭게 유입된 컬렉터 수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한국, 중국 본토, 일본이 여전히 견고한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과 미국 컬렉터들과도 활발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프레데릭 아르날, 펠로십 공동 설립자 (로스앤젤레스) / Zero 10

Frederic Arnal, Cofounder, Fellowship (Los Angeles) / Zero 10

“아시아 첫 선을 보이는 Zero 10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는 디지털 아트를 지원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는 기관 및 재단을 포함해, 특정 지역 기반(geo-specific)의 새로운 컬렉터들을 만났습니다.”

- 아니코 버먼, AOTM 디렉터 (뉴욕) / Zero 10

Aniko Berman, Director, AOTM (New York) / Zero 10

“에미 쿠사노의 ‘매지컬 컴팩트(Magical Compact)’가 오픈 직후 바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쁩니다. 디지털 작품을 보다 전통적인 실물 작업과 나란히 선보인 것도 큰 보람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디지털 아트에

# Art | Basel Hong Kong

익숙한 컬렉터뿐 아니라, 평소 주로 물리적 작업에 집중해 온 컬렉터들과도 폭넓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치코 카메야마, 루트 K 컨템포러리 디렉터 (도쿄) / 제로 10**

Ichiko Kameyama, Director, √K Contemporary

## 리더십 부문

아트 바젤의 홍콩 및 이 지역에 대한 오랜 헌신을 돌아보며, **아트 바젤 최고경영자(CEO) 노아 호로위츠(Noah Horowitz)**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홍콩 문화체육관광국과의 오랜 파트너십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홍콩은 아트 바젤 글로벌 플랫폼의 초석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장기 협약은 홍콩을 세계적인 국제 예술 허브로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양측의 공통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트 바젤 홍콩 디렉터 앙젤 시양-리(Angelle Siyang-L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번 에디션은 아트 바젤 홍콩이 판매는 물론 글로벌 교류 측면에서도 진정한 국제 플랫폼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완성도에서부터 기관들의 강한 참여, 그리고 부스 곳곳에서 이어진 심도 깊은 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목격한 모든 것은 이 페어가 글로벌 차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획득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시홀 전반에 흐른 재충전된 에너지는 서로 다른 커뮤니티를 한데 모으고, 이 지역과 더 넓은 세계를 연결하는 홍콩만의 고유한 역량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

올해 2회를 맞은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MGM Discoveries Art Prize)**는 신진 갤러리와 작가를 위한 섹터인 ‘디스커버리즈(Discoveries)’ 내에서 가장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선정해 수여된다. 2026년 수상자는 나쓰코 우치노(Natsuko Uchino, 갤러리 알렌 Galerie Allen)였다. 이 상에는 작가와 갤러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상금이 포함되며, 마카오 지역에서의 향후 프레젠테이션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 도시 전역 및 퍼블릭 프로그램

아트 바젤 홍콩 2026은 도시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문화 환경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페어는 폭넓은 제도권 및 공공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중심 축으로 기능했다.

주요 하이라이트로는 UBS가 프레젠티하고 M+와 공동 커미션한 샤지아 시칸더(Shahzia Sikander)의 M+ 파사드 커미션과, 크리스틴 선 킴(Christine Sun Kim)의 오프사이트 인카운터스(Offsite Encounters) 프로젝트, 그리고 타이쿤(Tai Kwun)에서 진행된 ‘Artists’ Night’ 등이 있었다.

페어 내부에서는 홍콩발레단(Hong Kong Ballet)과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UBS는 UBS 아트 스튜디오(UBS Art Studio)에서 찬 와이랍(Chan Wai Lap)의 작업을 소개했다.

## 퍼블릭 프로그램: 필름, 컨버세이션, 익스체인지 서클

아트 바젤 홍콩의 필름(Film), 컨버세이션(Conversations), 익스체인지 서클(Exchange Circle)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일반에 개방되었으며, 역동적인 토크, 상영,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 큐레이터, 문화계

# Art | Basel Hong Kong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엘렌 파우(Ellen Pau)가 큐레이션을 맡은 필름 프로그램은 '마법과 현실 사이에서(In Between Magic and Reality)'라는 제목 아래, 동시대 문화 속에서 상상력을 저항·기억·생존의 전략으로 탐구하는 움직임은 이미지 작업들을 선보였다.

아트 바젤의 대표 토크 프로그램인 컨버세이션(Conversations)은 올해 4일간 진행되며, 아시아의 기관 발전, 변화하는 컬렉터 행태, 예술과 기술의 교차 지점을 다루는 다양한 세션으로 확장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도리운 충(Doryun Chong)과 샤지아 시칸더(Shahzia Sikander)의 키노트 대담과 함께, 아트 바젤·UBS 아트 마켓 리포트(Art Basel and UBS Art Market Report) 1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이 포함되었다.

익스체인지 서클(Exchange Circle)은 올해에도 지역 전역의 문화 파트너들과 함께 기획된 쇼트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다시 자리했다.

## 차기 에디션

글로벌 리드 파트너(Global Lead Partner) UBS와 함께하는 아트 바젤 홍콩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개최되었으며, 3월 25일과 26일 프리뷰 데이(Preview Days)를 통해 공개되었다. 동시에 도시 전역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로 구성된 시티와이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차기 아트 바젤 홍콩은 2027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에디터 노트

### 아트 바젤 소개

아트 바젤은 1970년 바젤의 갤러리스트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바젤, 마이애미 비치, 홍콩, 파리, 카타르에서 현대 및 모던 아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아트쇼를 개최하고 있다. 각 페어는 개최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고유한 성격을 지니며, 참가 갤러리 구성, 선보이는 작품, 그리고 매 에디션마다 현지 기관들과 협력해 선보이는 병행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그 차별성이 드러난다. 아트 바젤은 제로 10(Zero 10)과 아트 바젤 앱(Art Basel App)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아트 바젤·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Art Basel and UBS Global Art Market Report) 및 글로벌 컬렉팅 서베이(Survey of Global Collecting), 아트 바젤 어워드(Art Basel Awards), 아트 바젤 샵(Art Basel Shop)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 활동 반경을 확장해 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artbasel.com](http://artbas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파트너사

아트 바젤의 **글로벌 리드 파트너**인 UBS는 동시대 미술과 작가들을 오랜 기간 꾸준히 지원해 온 기관이다. UBS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소장 동시대 미술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트 바젤과의 글로벌 리드 파트너십, 그리고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와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컬렉팅 서베이'의 공동 발행사로서 국제 미술 시장에 대한 담론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UBS는 또한 전 세계 주요 미술 기관, 행사, 아트 페어들을 폭넓게 후원하고 있으며, UBS 아트 어드바이저리(UBS Art Advisory)를 통해 초고액자산가(UHNW) 및 그들의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컬렉션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전략 수립과 거버넌스, 필란트로피를 통한 임팩트 조성, 다음 세대로의 승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독립적인 자문과 실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Art | Basel Hong Kong

2025년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Skytrax 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홉 번째로 '세계 최고 항공사(World's Best Airline)'에 선정된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은 170개가 넘는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 도시, 문화를 연결하고 있다. 아트 바젤의 **프리미엄 파트너**로서 카타르 항공은 새롭게 론칭된 카타르 에디션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의 모든 주요 에디션을 후원하며, 발견과 문화적 대화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자사 브랜드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아트 바젤의 **어소시에이트 파트너**(Associate Partners)는 BMW,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그리고 홍콩 관광청(Hong Kong Tourism Board)이다. BMW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트 바젤의 글로벌 파트너로 활동해 왔으며, 각 페어를 통해 비전 있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BMW 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 일환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동시대 미술, 음악, 영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수백 건의 문화 예술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왔다. 오데마 피게는 창의성이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우리의 삶에 목적을 부여한다고 믿는다. 오데마 피게 컨템포러리(Audemars Piguet Contemporary)라는 전담 컨템포러리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매체에 걸쳐 국제 작가들에게 카르트 블랑슈(carte-blanche) 형식의 작품 제작을 의뢰함으로써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홍콩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아트 허브이자, 이 지역 문화 지형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도시로, 세계적 수준의 아트페어, 최첨단 전시, 활력 넘치는 창작 지구들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홍콩 관광청은 전 세계 관람객을 초대해, 동서가 만나는 홍콩의 정체성과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미식, 럭셔리 여행에 이르기까지 — 문화와 창의성,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이 결합된 홍콩만의 역동적인 아트 신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한다.

아트 바젤 홍콩은 이 밖에도 **쇼 파트너**(Show Partners)인 루이 비통(Louis Vuitton), 처브(Chubb), GoTone 프리빌리지 클럽(GoTone Privilege Club)의 후원을 받고 있다. **호스트 파트너**(Host Partners)로는 루이나(Ruinart), 스와이어 프로퍼티(Swire Properties), 호카(HOKA), 레이밴(Ray-Ban), 넷드래곤 (NetDragon)이 함께한다. **오피셜 파트너**(Official Partners)로는 삼성(Samsung), 제냐(Zegna), MGM, 살로네 델 모빌레.밀라노(Salone del Mobile.Milano),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 어퍼하우스 홍콩(Upper House Hong Kong), 퀸테센셜리(Quintessentially), 제이엔비와이(JNBY), 3HK, 소호 하우스(Soho House)가 참여하고 있다. 아트 바젤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는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다. 파트너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artbasel.com/partners](http://artbasel.com/partn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간 아트 바젤 일정

바젤: 2026년 6월 18–21일

파리: 2026년 10월 23–25일

마이애미 비치: 2026년 12월 4–6일

카타르: 2027년 1월

# Art | Basel Hong Kong

홍콩: 2027년 3월 25-27일

## 온라인 미디어 정보

미디어 관련 정보와 이미지는 [artbasel.com/press](http://artbasel.com/press)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언론인은 아트 바젤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미디어 메일링에 가입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의 최신 소식은 [artbasel.com](http://artbasel.com)을 방문하거나, 페이스북 [facebook.com/artbasel](https://facebook.com/artbase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트위터·위챗에서 @artbasel 계정을 팔로우하면 받아볼 수 있다.

## 프레스 연락처

아트 바젤, 페이 팡(Fay Pang)

Tel. +852 9822 3229, [press@artbasel.com](mailto:press@artbasel.com)

아시아 지역 PR

서튼(SUTTON), 에리카 시우(Erica Siu) & 베스 코너(Beth Corner)

Tel. +852 6015 1016, [erica@suttoncomms.com](mailto:erica@suttoncomms.com), [beth@suttoncomms.com](mailto:beth@suttoncomms.com)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PR

서튼(SUTTON), 쿠룸 부카리(Khuroum Bukhari) & 조지프 램(Joseph Lamb)

Tel. +44 7715 666 041, [khuroum@suttoncomms.com](mailto:khuroum@suttoncomms.com), [joseph@suttoncomms.com](mailto:joseph@suttoncomms.com)

아메리카 지역 PR

서튼(SUTTON), 사라 폭스(Sara Fox) & 클레어 슈워츠(Claire Schwartz)

Tel. +1 423 402 5381, [saraf@suttoncomms.com](mailto:saraf@suttoncomms.com), [claires@suttoncomms.com](mailto:claires@suttoncomms.com)